

교섭속보

- 주요구 1. 정년연장, 신규채용
2. 고정OT 월 20시간
3. 특별상여금 영업이익 15%
4. 노동조합 활동 보장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이 현 우 / FAX(031)680-6865 / 발행일 2026년 9월 23일(수) / 제 12호

13차

◆ 임금

◇ 교섭 일시 및 장소 - 2026년 9월 22일(화) 10:00 ~ 10:05 평택공장 본관회의실

◇ 참석

□ 노측 : 김병철 교섭대표 외 10명 □ 불참 : 박춘석 교섭위원

□ 사측 : 김현욱 교섭대표 외 7명 □ 불참 : 없음

□ 사회 : 이희대 교섭위원 (노측)

□ 차기교섭 : 실무 논의

◆ 단체협약

◇ 교섭 일시 및 장소 - 2026년 9월 22일(화) 12:00 ~ 12:05

◇ 참석

□ 노측 : 김병철 교섭대표 외 10명 □ 불참 : 없음

□ 사측 : 김현욱 교섭대표 외 7명 □ 불참 : 없음

□ 사회 : 이용환 교섭위원 (노측)

□ 차기교섭 : 실무 논의

- 임금 교섭 주요 내용 -

□ 노 : 조합 요구안이 반영된 안 제시 바란다.

□ 사 : 늦어진 만큼 많은 고민 끝에 안 제시했다. 조합에서 전향적인 검토바란다.

□ 노 : 금일 13차 교섭에 임하기까지, 회사는 현장 조합원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지금 이 교섭 상태로는 합의에 이르기 힘들다 판단한다. 따라서 금일을 기점으로 2026년 임금 교섭 결렬을 선언한다. 다만, 교섭의 문은 닫지 않고 조합의 요구안이 반영된 안은 언제든지 제시하여 노사간 분쟁을 최소화하길 바란다.

- 단체교섭 주요 내용 -

□ 노 : 조합의 요구안에 대한 회사안 제시하라.

□ 사 : 준비된 안 없다. 30여가지 의견 일치되지 않은 안에 대해서 실무에서 의견을 좁히고 본교섭에서 다루자.

□ 노 : 전문조차 이견이 있어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년연장, 신규채용, 노조활동보장 등 조합 요구안에 대해 전혀 진전이 없다. 임금과 마찬가지로 교섭 결렬을 선언한다. 하지만 조합은 회사가 조합원들이 공감할 만한 안을 제출하면 언제든지 교섭에 응하겠다.

교섭 결렬을 선언한다

13차 교섭이 열렸다. 금속노조 만도지부는 이 자리에서 교섭 결렬을 공식 선언했다. 더 이상 이 교섭에 희망을 걸 수 없다.

사상 최대 실적, 사상 최악의 성의

요구안을 전달한 지 벌써 두 달 반이 넘었다. 하지만 오늘 13차에 이르기까지, 고정OT도 월급제수당도 성과급도 회사의 답변지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항목이었다. 이것이 성실 교섭인가. 이것은 성실이 아니라 시간을 버는 기술일 뿐이다.

2024년과 2025년, 회사는 연속으로 영업이익 3,600억원대를 기록하며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실적을 냈다. 그런데 그 실적을 만들어낸 조합원들의 실질임금은 6년 연속으로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쳤다. 2020년 코로나로 어려울 때는 조합원들이 기본급 동결에 동의하며 함께 버텼다. 그런데 이듬해 순이익이 30배 넘게 뛰었을 때도, 사상 최대 실적을 두 해 연속 갱신한 지금도, 회사가 조합원에게 내민 것은 실망스러운 숫자뿐이었다. 위기는 함께 나누고 호황은 나누지 않는 회사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결렬을 선언하며, 남은 것은 투쟁뿐이다!

금속노조 만도지부는 금일 13차 교섭을 끝으로, 자력에 의한 교섭 타결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섭 결렬을 공식 선언하며,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다. 지금까지 회사가 보여온 무성의한 교섭 태도와, 조합이 근거자료까지 갖춰 제시한 정당한 요구에 대해 어떠한 제시안도 내놓지 않은 사실을 날날이 밝힐 것이다.

회사는 지금이라도 노동조합의 요구에 성실히 답하라. 그렇지 않다면 조합은 쟁의권을 확보하고, 이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당한 몫을 쟁취할 것이다.



14년간 쌓인 분노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두 달 반을 참아왔다. 열세 번의 실망을 견뎌왔다. 그뿐인가. 무려 14년을 참아왔다. 이제는 더 지켜볼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답할 시간이다. 금속노조 만도지부는 교섭 결렬을 시작으로, 회사가 성실한 안을 들고 나올 때까지 모든 절차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조합원 동지들의 단결과 참여가 이 싸움을 끝까지 끌고 가는 힘이 될 것이다.